

# 都市景觀과 造景

尹 澄 五 韓國綜合造景公社 研究室長

## 1. 都市景觀 造成에의 指標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서 都市를 形成할 때 거기에는 分明 어느 즐거움이 뒤 따르게 되는 것이며 몇千몇萬이란 家族들이 모여서 살 때 거기에는 共同的의 즐거움과 흐뭇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람들은 孤立해서 살아가는것 보다는 커뮤니티 속에서 生活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을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都市가 市民이나 訪問者에게 보여주는 視覺的인 印象(impact)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모여들므로서 共同的의 즐거움이 생겨나듯이 建物도 集合하므로서 個個의 建物에서 얻어질 수 없었던 視覺的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田園속에 외따로 세워진 建物은 建築作品으로서 體驗되는 것이겠지만, 여러채의 建物이 集合되면 거기에는 建築을 벗어나 獨立된 建築物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즐거움이 펼쳐지게 되며 하나의 藝術이 싹트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建物사이를 거니며 지나갈 때 予期치 않았던 建物이 나타나 새로운 變化를 느끼게 해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느낌은 建物群의 配置와 構成에서 생겨지는 것이며 이것은 個個의 建物에서 맛볼 수 없었던 特異한 都市感情이라 할 수 있다.

建物이 모여서 그 속에 사람들을 감싸들이게 되면 建物과 建物사이에 생기는 空間은 建物自體의 生命과는 달리 더 一層 生動하는 空間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속에 있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그 속에 들어 간다」라는 느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많은 建物들이 모이게 될때 그 곳에는 機能이 다른 建物도 混入하게 될지 모른다. 그 建物은 住宅 사이에 들어선 銀行建物 혹은 教會建物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建物들은 特質, 規模, 色彩 複雜性等 各各 獨立建物로서의 特徵을 갖추게 되어 이 特徵이 住宅의 特徵과 比較되어 더 한층 現實的으로 映像될 것이다.

都市를 對象으로 하는 研究家들에게는 人口統計學者, 社會學者, 都市計劃學者, 그리고 造景學者등의 專門家와 함께 많은 技術者 交通專門家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各種의 要因을 구사하여 가장 有效하고도 健全한 都市組織을 造成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協力하고 있는데 이것은 人間이 피하는 事業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企圖의 結果가 都市를 지루하고 生氣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企劃은 失敗라 아니할 수 없다.

建築에는 建築의 技法이 存在하듯이 建物, 樹木, 自然, 水, 交通, 廣告……등 모든 것의 表現에도 技法이 있는 것이다. 이 技法은 여러 要素를 活用하여 環境을 創造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를 建物과 樹木 關係에서 들어 보기로 한다.

建築物과 樹木은 서로 緊密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都市 景觀의 記號(Comma of town scape)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으로 볼 때 建築物과 樹木들 사이에는 調和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樹木은 그 品種의 推移를 뺀다면 별로 큰 變化가 없다는 것에 比한다면 建築物은 새로운 技術과 機能에 따라서 크게 變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最近에는 度度가 더욱 擴大되어가고 있으며 建築家는 景觀을 建築의 一部分으로 생각하게끔 되어 屋內·外에 있어서의 草花나 樹木의 活用 등, 아름다운 것과 豐饒한 것을 追求하게 되었다.

樹木을 建築에 導入하므로써 建物에 豊饒함을 갖추게 하고, 建物은 樹木의 建築的인 資質을 浮上 시키기 위해서 樹木과 建物을 統合하는 技法을 造景(Landscape)에서 求하게끔 되었다.

建物과 樹木이 統合될 때 우리들의 視覺에 미치는 效果를 人體로 다음의 4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높은 建物과 低木

切斷의 效果를 適用하여 分離를 實現할 수 있다.

둘째, 높은 建物과 高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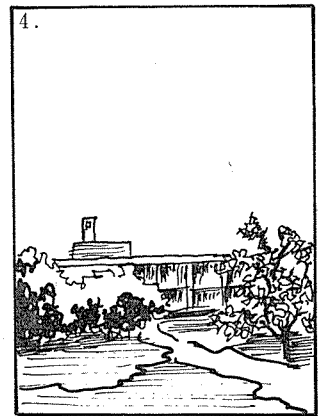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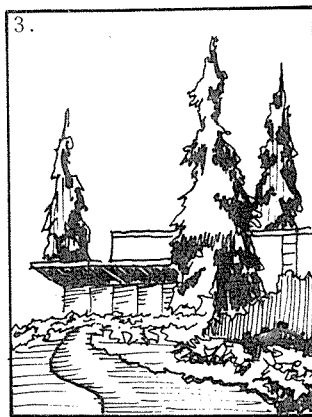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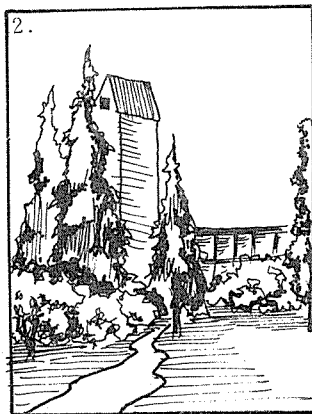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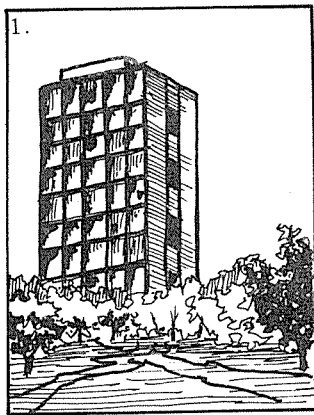
垂直性的의 強調에 의하여 動的이며 律動的인 效果를 얻어 낼 수 있다.

셋째, 낮은 建物과 高木

水平과 垂直의 對照 그리고 安定과 平和의 效果를 얻어 낼 수 있다.

넷째, 낮은 建物과 低木

작은 스케일과 親近感을 맛볼 수 있으며 셋째번의 경우에 比해서 더 一層 安定感을 자아 내는 效果를 얻어 낼 수 있다.



이러한 效果를 나타내는 여러 要素를 모아 하나의 드라마(Drama)를 만들고, 여기에서 하나의 테마(Thema)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할 때 都市 그 自体는 環境속에 있어서의 드라마틱한 現象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環境이란것은 거의가 「본다」는 것을 통해서 理解되는 것이며 이 環境이 우리 의 「意志의 領域」을 넘어서 情緒的인 面에까지 反應을 불러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反應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 다음의 세 가지 要点을 理解하는데 努力하지 않고서는 環境을 理解할 수 없다.

첫째로 視覺(Vision)을 들 수 있다.

여러 建築技法에 의해서 세워진 建物로 의해서 構成된 거리를 거닐 때 우리들의 눈에 映像되는 光景 즉 都市景觀은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變化에 차 있다. 곧게 뻗은 街路, 끊임없이 움직이는 街路樹의 樹冠, 곳곳에 마련된 花壇, 멀리 보이는 高層建物, 高架道路, 질주하는 自動車, 수 많은 歩行者…… 등등 一定한 速度로 거닐때도 視界속에 들어오는 都市風景은 때때로 새로운 것의 發見과 놀라움이 빛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느낌을 「連續하는 視覺」이라고 한다.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都市의 各 要素를 操作하여 感情에 衝擊(Impact)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길고 直線的인 道路는 처음 映像된로觀이繼續되어 單調롭게되므로 거의 衝擊같은 것은 느낄 수 없게 된다. 人間의 마음은 對照나 事物사이의 相違點에 對해서 敏感하게 反應하는 것이므로 街路和 花壇 혹은 建物과 街路樹등 어느 두 要素의 映像이 함께 마음속에 비칠 때 우리들은 생생한 對照를 느끼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都市를 더 한층 깊게 理解할 수 있는 要素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로 場所(Place)를 들 수 있다.

環境속에서의 自己自身の 位置를 느끼게 하는 反應에 關與하는 것이 곧 場所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늘 意識水準에서 露出(Exposure)과 包圍(Enclosure)가 자아내는 衝擊에서 생겨지는 一連의 體驗을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다.

이 衝擊이 病的으로 進展되면 廣場恐怖症이나 閉所恐怖症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높은 絶壁에 선 사람은 位置感覺을 確實하게 意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깊은 洞窟속에 들어간 사람은 包圍된 環境속에 있다는 事實에 銳敏하게 反應하듯이 場所는 언제나 單純한 事實들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周圍環境에 關與시키려는 우리들 自身の 肉体속에 갖추어져 있는 本能的이면서도 持續的인 習性다  
으로서 位置感覺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이 感覺은 環境을 設計하는데 있어서 重要な 因子的 구실을 하는것으로써 이 位置感覺을 積極的으로 活用한다면 都市 그 自体를 造形的인 體驗으로 다루어가는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써 우리들이 都市속을 거닐 때 느껴지는 緊迫感과 空虛感이 서로 交叉되어 展開되며, 露出과 包圍의 連續(Seguence) 혹은 压迫感과 解放感의 連續등을 體驗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街路나 廣場에서 「그 속에 있다」 혹은 「그 곳에 들어 갈려고 한다」 또는 「그 곳에서 나갈려고 한다」는 여러 느낌을 갖는데 이러한 環境에 對한 一致感과 共感에서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여기」라는 意識을 만들어 내는 同時에 「저기」라는 意識이 自動的으로 鮮明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쪽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며, 優秀한 都市景觀은 이 兩者의 結合關係 如何에서 이루어지는 事例가 많다.

셋째 로 內容(Content)을 들 수 있다.

많은 都市가 創建의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있듯이 都市의 組織속에도 多様な 時代的 痕跡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都市建築은, 各種의 建築樣式, 그리고 그것들의 레이아웃(Lay out)에 남겨져 있는 그 時代의 面目, 素材, 規模등에 의해서 構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都市組織은 色彩, 感觸, 規模, 樣式, 特性, 個性, 獨自性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다.

都市建物の 樣式은 宗教와 社會的 習慣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는 것으로서 觀察의 範圍가 좁을때에는, 地方色에 對한 銳敏한 感受性이 必要하게되는 경우도 생 나 一般的으로 都市建築은 너무나도 鈍한 感受性에 젖어 있는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는 必然的으로 秩序있고, 明折함을 자아낼 수 있는 共通의 차임새가 必要하게되는 것이며 이 차임새속에서 스케일(Scale)과 樣式(Form), 構造(Texture)와 色彩(Colour), 特色과 個性등의 微妙한 陰影이 操作되어야 하는 것이다.

뛰어난 色彩의 對照는 餘裕있는 調和를 느끼게할 뿐만 아니라 色彩 그 自体의 本質을 表現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環境이란 것은 一樣性인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의 相互作用에 還元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視覺의 考察에서 運動이란것은, 計劃하기에 便利하고 單純하며 測定이 可能한 連續이 아니라 거기에는 「눈 앞에 있는 光景」과 「出現되고 있는 光景」의 두가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人間은 언제나 環境속에서 自己의 位置를 知覺하고 있다는 것과, 一致感 즉 아이덴티티(Identity)의 感覺이 「다른 場所」의 意識과 結合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一樣性은 生活을 지루하게하며 多樣性은 生活에 生氣를 불어 넣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連續하는 視覺과, 여기와 저기, 혹은 이것과 저것…… 등의 視點등 都市를 두部分으로 区分해서 把握하는 것이 可能해지며, 또한 都市를 理解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想像하는 熱情과, 힘과, 生命力에 의해서 都市 建築의 새로운 패턴(Pattern)을 마무리서 사람들의 故鄉인 都市를 建設하고 都市景觀을 造成해 갈때 비로소 우리들은 살기좋은 都市를 建設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 造景과 造景計劃에의 指標

造景이란 文字 그대로 景觀을 造成하는 藝術이다. 그러나 이것은 彫刻家나 画家들이 만들어내는 彫刻品이나 그림과는 確然히 다른 것이다. 이는 人間이 利用하는 모든 屋外空間과 土地의 利用·開發·創造에 있어서 보다 機能的이고 經濟的이며 視覺的인 環境을 造成하여 이를 保全하는 生態的인 藝術性을 띤 綜合科學 藝術이라 하겠다.

따라서 造景이란 것은 人間의 利用과 慰樂을 圖謀하는 方向에서 土地, 構造物, 植生, 물 등을 對象으로 그 形態를 配列하고 構成하는 藝術이며, 機能과 景觀의 性格을 調和시켜서 새로운 屋外空間을 創造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自然景觀의 保全은 勿論,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하므로써 國民保健에 寄與하며 生産的이면서도 經濟的인 景觀을 造成하는데 그 使命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造景專門家は 建築家나 기타 技術者에 의해서 作成된 設計와 自然과의 사이에 指摘될 수 있는 모든 欠陷을 補完하는 仲裁者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造景을 計劃하고 實行할 수 있는 造景專門家は 建築專門家が 建設하는 建物과 建物사이 혹은 建物の 周圍環境을 設計하는 專門家로서 이것들의 空間構成을 다루며 더 나아가서는 人間과 環境사이의 關係를 改善하여 自然이 갖는 淨化能力을 向上시켜 公害要因을 緩知하고 自然生態界의 均衡과 維持를 試圖하는 한편 視覺的 效果를 피하는 등 人間이 살기 좋은 住居空間을 造成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造景이 그러겠지만 특히 都市造景에 있어서는 역시 快適한 環境造成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造景問題의 核心은 景觀과 土地利用사이의 보다 나은 物質的, 視覺的 相互關係를 樹立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 이것을 위한 努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都市의 建築이 視覺을 통해서 人間에 느낌과 興奮을 줄수 있는 한편 機能的으로 設計되어야 하겠지만 造景역시 그 設計에 있어서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여러 原則을 버서날 수는 없는 것이다. 造景設計 原則을 들어보면,

첫째로 機能的이어야 한다.

目的없는 造景設計는 있을 수 없듯이, 흙·물·식물·동물 등의 自然建築, 車道·歩道 駐車場 등의 開發地域, 建物·넙 등의 大規模構造物, 울타리·벤취·看板 등의 小規模構造物, 바람·빛·비의 自然의 힘... 등 各種 造景要素 사이의 合理的인 聯關性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人間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모든 開發과 造成의 主体는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開發은 人間의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 하는데 그 目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美的이어야 한다.

美的要素는 機能과 함께 다루어서 調和시켜야 하며 美術, 音樂, 文學 등과 같이 人間의 心理的 福祉向上이라는 側面에서 그 價值가 評價되어야 하는 것이다.

美的要素를 設計에 反映하기 위해서는 藝術構成의 原理適用은 勿論이지만 設計者의 直感力을 活用해야 한다. 美的構成은 秩序와 變化를 必要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秩序있는 環境속에서 人間은 安定을 追求할 수 있으며, 變化있는 環境속에서 觀心과 刺戟 그리고 歡喜와 衝擊을 맞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넷째로 實体的이어야 한다.

造景에 의해서 造成되는 어느 事例에는 그것을 特徵지을 수 있는 強한 性格이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人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自然의 再創造物을 平和와 興奮 혹은 편안함과 두려움 같은 經驗的 性格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合理的이어야 한다.

造景施設物의 設計에 있어서는 이미 그곳에 設置되어 있는 既存 施設物의 美的 혹은 物理的인 性格과 잘 調和되도록 해야 하며 施設物 相互間의 有機的인 結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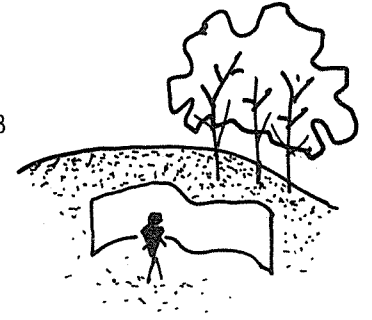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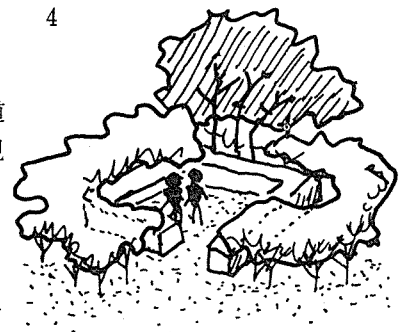
2



3



4



屋外空間의 構成過程

여섯째는 必要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造景設計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物量, 構造物, 施工등에 最低基準을 가장 適切하게 適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施設物의 크기, 수량 그리고 이것들이 施設될 周圍環境의 自然的要素등을 勘案한 作業條件의 充足이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로 最低費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造景設計에서 計算되는 모든 經費는 勿論, 造景素材 購入에 따른 費用은 이것을 支拂하는 設計依頼者와 設計者가 相互 協議하여 解決하는 것이겠지만 設計者는 不必要한 經費節減에 留意해야 하는 것이다.

여덟째로 監督의 便宜가 考慮되어야 한다.

모든 造景施設은 利用者가 自由스러운 氣分으로 利用할 수 있게 可及的이면 施設利用의 統制를 止揚하고 「해서는 안될 事項」을 「해야 할 事項」으로 代置할 수 있도록 試圖해야 하며 이것이 곧 監督을 容易하게 한다는 것임을 造景設計者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 위에서 說明한 設計原則에 立脚하여 造景專門家는 다음에 提示한 設計過程을 거쳐서 事實과 前提를 分類하고 體系있는 設計를 行하여야 하는 것이다.

### 1. 調査(Survey)

自然에 對한 理解가 곧 造景計劃과 設計의 始初이며 立地内外의 여러 因子에 關한 調査와 이에 關與되는 資料를 蒐集하여 潛在되어 있는 價值를 計劃에 活用할 수 있게 하는데 調査의 目的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다음 事項이 實行되어야 한다.

#### (1) 計劃樹立

事業初期의 必須條件을 規定하는 것으로서 目標達成을 設定하는 過程인 것이다.

造景施設物의 種類, 數量, 規模, 取用能力, 設置場所, 其他必要事項의 計劃을 세우는 것이다.

#### (2) 立地内外의 調査事項

計劃이 確定되면 設計者는 既存資料의 蒐集, 地圖上의 檢討, 現地調査에 의한 資料蒐集을 實行하는 過程이며 그 內容을 整理하면 다음 表와 같다.

項	區 分	內 容
人工要素	境界線	法的인것, 天然的인것……등
	施設物	私有物, 公共物……등
	構造物	建物, 橋梁, 歷史的構造物, 考古學的構造物……등
	交通	道路, 步道, 其他輸送手段……등
	有用施設	電線, 電話線, 가스線……등
	土地利用	農業用地, 工業用地, 休養地, 宅地……등
	法 및 規程	土地利用區, 保健規制……등
自然要素	地形	傾斜度, 排水方向……등
	土壤	地表透水性, 安定性, 肥沃度……등
	水	流水, 溜水, 湧水, 河川, 江……등
	岩性	岩質, 岩種, 岩層……등
	地性	地質, 地層……등
	植生	闊葉樹(林), 針葉樹(林), 山岳, 林野, 平野, 草地……등
	野生動物	鳥類, 哺乳類……등

白 然 의 힘	溫 度	공기, 물, 땅……등
	太 陽	角度, 光度……등
	바 람	方向, 強度……등
	비	頻度, 強度……등
	눈	頻度, 強度……등
知 覺 素	立地内景觀	近景, 中景, 遠景……등
	立地外景觀	近景, 背景, 借景……등
	냄 새	種類, 強度, 方向……등
	소 리	種類, 強度, 方向……등
	패 턴	街路, 運動, 生産, 休憩, 住居……등
其 地	線, 形態, 質感, 色彩, 規模……등	

## 2. 分析(Analysis)

調査된 內容과 蒐集된 各 資料를 分析하는 過程이며, 計劃되는 施設物의 合理的인 集團化을 위한 施設의 聯関 關係등을 다루는 計劃聯関 過程과 機能的 패턴을 創造하는데 目的이 있는 聯関圖表作成過程 그리고 植生, 水, 土壤 등 여러 調査事項을 地形圖에 表示하여 立地性格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이 있는 立地分析過程의 3段階을 區別할 수 있다.

## 3. 綜合(Synthesis)

理想的인 機能圖表를 立地에 옮기는 過程으로서 設計의 核心的 部分을 이루는 것이다. 設計構想의 結果는 概略的인 것으로서 施設物등 造景에 關與되는 모든 素材의 規模나 形態단을 이 過程에서 決定하는 것이다.

## 4. 基本計劃(Master plan)

앞에서 이루어진 設計構想의 範圍內에서 細部的으로 調整하는 過程이며 樹型, 質感, 色彩등의 空間構成에 對한 計劃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基本計劃의 確定은 檢討過程에서 設計依頼者에게 設計에 關한 說明을 해야 하며 要求條件이 있을 때는 이것을 設計에 反映시켜 가면서 基本計劃을 確定지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3. 景觀 造成과 植栽

植栽란 景觀을 對象으로하여 植物素材들이 지니고 있는 生態과 機能과 美的 要素를 最大로 발휘할 수 있도록 計劃하고 設計하여 이것을 施工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元來 植物素材는 造景專門家가 景觀을 造成하는데 있어서 利用하는 素材를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서 植栽效果를 效果的으로 具現하기 위해서 다음 몇가지를 銘心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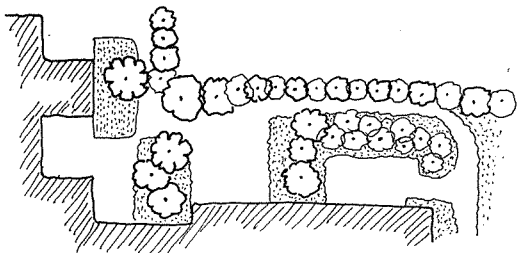
첫째, 設計依頼者의 要求條件과 立地條件을 認知해야 한다.

둘째, 各 條件에 適合한 優良素材를 選定해야 한다.

셋째, 植生의 美와 變化의 美를 表現할 수 있게 配植해야 한다.

넷째, 適地, 適所, 適期에 植栽해야 하며, 適切한 事後管理가 있어야 한다.

한편 植物素材는 景觀속에서 人間들에게 여러가지 效果를 안겨다 주는데 특히 그 利用的인 方法과 機能的인 效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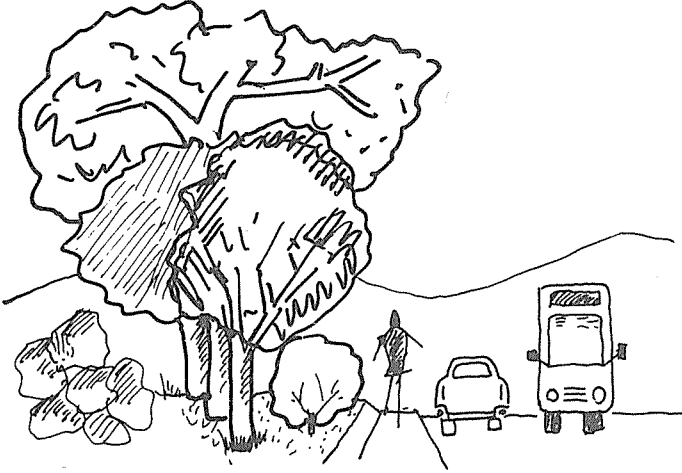
私生活保護를 위한 境界植栽

1. 建築的인 利用 및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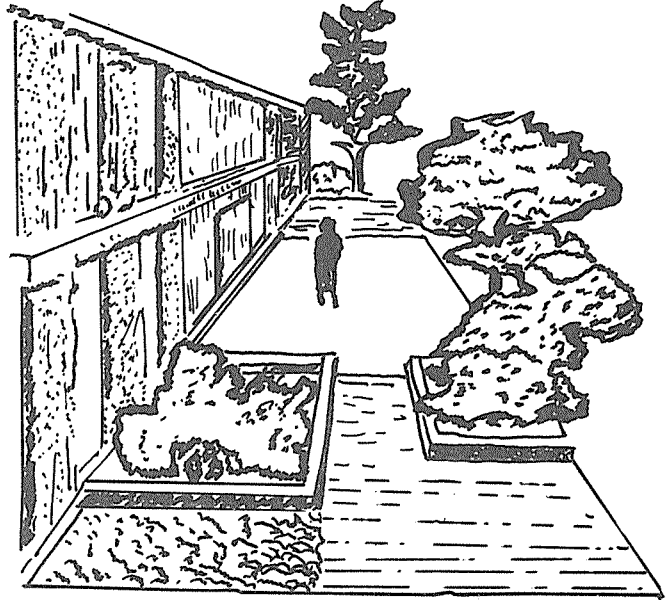
私生活의 保護, 遮断과 隱蔽, 空間의 分割등을 들수 있다.

2. 科學的인 利用 및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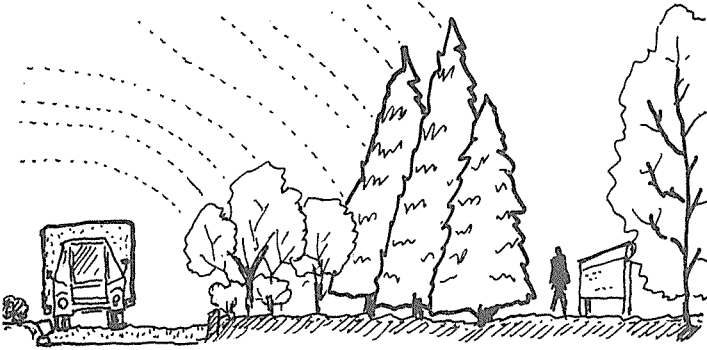
新鮮한 나무잎의 騒音, 먼지의 濾過, 直射光의 遮断, 溫度調節, 有害가스의 吸收, 閃光調節 酸素의 供給, 꽃과잎의 香氣 提供 등을 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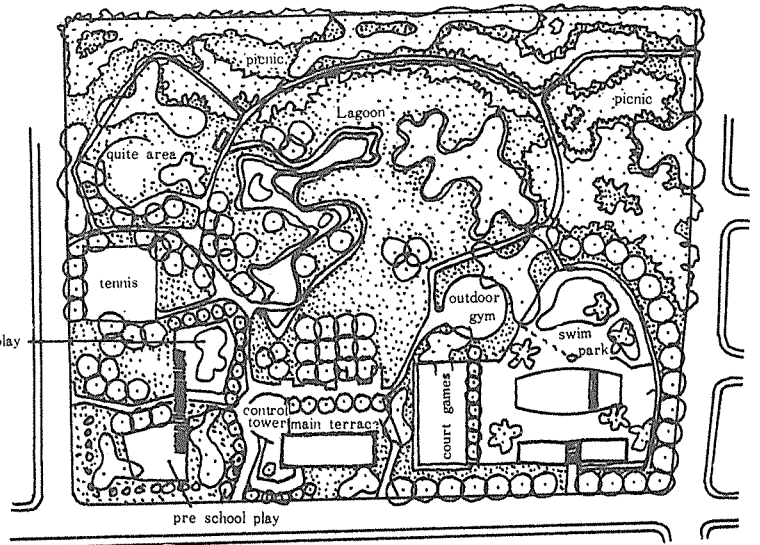
遮断과 隱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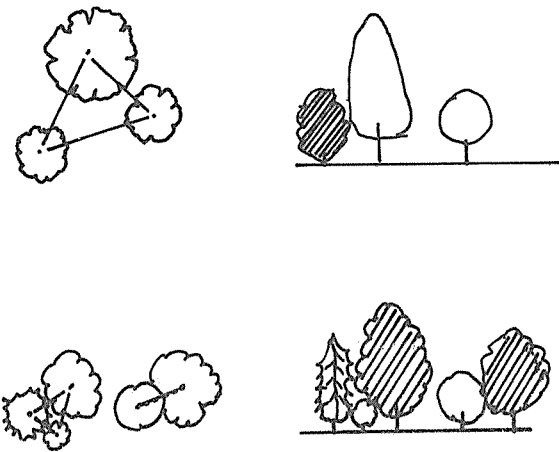
空間要素의 分割



騒音調節



整形式, 自然風景式, 自由形植栽를 겸비한 Buenz公園



自然風景式 植栽의 基本패턴

### 3. 気象學的인 利用 및 效果

太陽의 輻射熱調節, 바람의 調節, 降水調節, 溫度의 調節등을 들 수 있다.

### 4. 美的 利用과 效果

各種 技法에 의한 彫刻物的인 利用, 反影, 投影, 背景的인 利用, 그리고 樹木들의 線形美的 利用, 樹壁 등을 들 수 있다.

### 5. 其他의 效果

植物一般에 對한 觀賞과 認識, 娛樂, 休養的인 利用, 土壤에 對한 有機物의 供給과 保存, 기타 鳥類 및 野生動物에 對한 棲息處와 먹이의 提供, 人間에게의 食糧供給등을 들 수 있다.

以上 說明한 植物素材의 效果를 勘案하여 植栽에 關한 植栽設計(Planting design)가 이루어 진다음 施工에로 옮겨가는 것이 順序이다. 景觀造成을 위한 植物素材의 配植樣式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一般的으로 傳統的인 手法이 確立되어 널리 利用되고 있는 整形式植栽와 自然風景式植栽 그리고 現代人들의 感覺에 適合되도록 새로운 手法으로 發展시킨 自由形式植栽와 群落式 植栽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 × ×

以上은 都市建築과 造景의 基本的인 關聯性을 原則的인 立場에서 說明한 것이며 다음에 機會가 있으면 事例를 들어 細部的인 面을 다루어 보고 싶다.

## 물 자 절 약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 시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